

문화광장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니 이제 우리네 마음도 무디어지기 시작했다. 마스크를 쓰는데 민감하지 않다. 일일이 쓰던 마스크도 놓칠 때가 자주있다. 사람과의 만남도 주먹 부딪침에서 약수로 바뀌고 있다. 마치 코로나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여행을 가려면 조심스럽고 감히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결혼식장이나 초상집에도 가고 싶지 않다. 생각하기로는 연젠가는 끝날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려본다. 물론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예측하지 못한다.

코로나와 함께 사는 길

단지 끝날 때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기쁘지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면서도 벗어던지지 못하고 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일 년 이상 코로나와 같이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뗈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마치 미운 이웃이 있어서 보기 싫더라도 매일 대면하며 사는 것과 같다. 만일 그 불편함을 못 견뎌 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떠나야 할 것이다. 이웃을 떠날 수는 있어도 코로나는 이웃과 달리 세상 곳곳에 있으니 떠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겸허하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자신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성가시고

싫지만 함께 살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코로나도 그 중 하나로서 때고 싶어도 뗈 수가 없고 함께하기에는 기분 나쁜 대상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함께할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고 막막하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 멀리 달아나기라도 할 것인가? 우리는 코로나19가 있는 불편한 상황에 안주할 수 있어야 한다. 회피하지 말고 함께 하되 바라보고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스러움을 우리는 겪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세먼지가 위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걱정은 되지만 불안하거나 무서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았고 조심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감염이 돼 죽거나 치료가 된다고 해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미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집을 나서면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사람간의 거리를 두며,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손을 씻는다. 다만 코로나에 너무 민감하게 행동하다 보니 에너지가 소진돼 살아갈 의욕이 떨어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거리두기는 서로를 침해하기보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손 씻기는 건강한 몸을 가꾸는 정결의 자세로, 마스크 쓰기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웃처럼 아침저녁으로 만나되 물리적 거리를 알아차리며 평정상태로 지내는 것이다.

사설

고용유지 애쓰는 기업들 적극 지원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다. 특히 기업의 사정은 말할 나위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경제활동이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제주지역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실적이 기업의 실상을 그대로 비추준다. 지난해 도내 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은 총 6214건에 지원액은 62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80여건) 대비 건수로 80배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대다수의 기업이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을 월별로 보면 1월 2건, 2월 1건, 3월 9건에 그쳤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는 이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매우 미미했다. 그해 4월 250건을 시작으로 많게는

1032건(7월), 적게는 522건(12월)이 지원됐다. 제주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다. 비단 고용유지지원금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빛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 실적이 방증한다.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보증지원 규모는 2만1091건 5148억원에 이른다. 2019년(1만1245건 2800억), 2018년(9901건 2440억)에 비해 갑절 이상 증가했다. 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이나 대출로 경영위기를 견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 들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때문에 힘겹게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기업들에 대한 조건 완화 등 정부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가뜰이나 올해 1월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로 기록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이재수난'과 제주4·3이 신축년에 맞는 '봄'

제주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 이재수의 난과 4·3이 신축년에 화해와 상생의 이름으로 다시 불리워지고 있다. 종교계가 올해 신축교 안(이재수의 난) 120주년에 화해·상생을 위한 새 행보에 나섰고, 4·3은 국가 배·보상 중심의 '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해 양대 비극의 아픈 과거를 치유할 '새 봄'을 맞았다. 과거 '권력자(가해자)'의 총칼에 쓰러져 간 수 백, 수 만의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신축년 봄이 안전한 치유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다. 제주 신축년하면 떠올리는 1901년 이재수의 난, 올해 두 번째 육십갑자로 120년이 된다. '신축교안'이라 부르는 가톨릭계가 올해 기념행사로 화해의 탐 제막, '화해의 길' 순례, 희생 영령 위령 미사를 준비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지난 1999년 신축교안 등과 거 교회사의 잘못 반성, 2003년 '미래선언'을 통해 '과거 선교 과

정서 제주 민중의 저항을 불러온 잘못 사과'를 한 바 있다. 올해 제주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할 새 '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4·3은 국가 배·보상, 수형인 특별재심 등의 내용을 주로 담은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에타게 기다리던 '봄'을 맞았다. 4·3 영령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 '잠들지 않는 남도' 제주 근현대사의 참혹한 양대 비극 치유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정명'도 안된 이재수의 난은 여전히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4·3 역시 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후속작업'들도 여전히 많다. 이재수의 난과 제주4·3이 화해와 상생의 '봄'을 맞았지만 도민들의 관심은 계속돼야 한다.

열린마당

봄철 산불,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예방하자



고민수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며칠전 전국 곳곳에서 예고없이 찾아온 불길은 화마로 이어져 아름다운 푸른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봄, 겨울에 산불 발생이 집중돼 있고 평균 440건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한다. 산불이 발생하면 자연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고 즐거움을 주는 신성한 존재를 잃는 것일 수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으니,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잘 지켜 주기 바란다.

첫째 산에서는 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입산자들이 실수로 낸 불로 인한 산불 사고가 많은 만큼 입산 시에는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취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취사를 하거나 캠핑을 즐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둘째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말자.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없이 영농 부산물이나 각종 쓰레기를 태우면 안된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해 주변의 산과 들이 전부 다 타버릴 수 있다. 불법 소각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셋째 불을 발견했을 때는 빠르게 신고해야 한다. 산불 발생 지역과 시간, 산물 크기 등의 내용과 산불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야 한다. 산불을 발견했다면 소방서, 산림청에 즉시 신고하고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야 한다. 온 국민이 산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한다면 산불 또한 점진적으로 줄어줄 것이다. 우리 모두 산불을 예방해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고 따뜻한 봄을 만끽하길 바란다.

뉴스-in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2공항 추진 '쟁걸음'

장성철 위원장 원내대표 면담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주요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향후 도당 당론이 확정되면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해 요청하겠다"면서 당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건의. 이에 주 원내대표는 "제2공항 정책과 활동이 도민들과 함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 또 장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당 차원에서 노력한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 이상민기자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돼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는 반응. 안동우 시장은 이날 "제주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 공직자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며 화훼농가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세계여성의 날 꽃 전달 캠페인

○...제주시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공직자 1387명을 대상으로 꽃꽂이와 장미꽃을 전달하는 '사랑의 꽃 전달 캠페인'을 실시. 이번 캠페인은 여성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여성 직원들에게 장미꽃 선물

○...제주도교육청이 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각 부서에서 기념행사를 진행. 도교육청은 이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화해 소비 촉진을 위해 여성 직원들에게 장미꽃 1송이씩 전달하며 격려하는 이벤트를 전개. 이석문 교육감은 세계여성의 날 기념사를 통해 "여성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남녀 평등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함께 손 잡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 진선희기자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양안규(1942. 4. 8생)
최후주소: 서귀포시 인덕면 병암로404번길 17(상창리)
상기자는 2020년 5월 2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2월 25일 제주지방법원 2021나단5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회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서귀포시 인덕면 회순중앙로 35-1, 104호(회순리)
2021년 3월 9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안정섭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설(가임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

서귀포시정소식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 알림
○ 운영기간: 2021. 3~11월, 매월 세 번째 목요일(10:00~12:00) 예정
○ 점검대상: 경유차, 휘발유, LPG차량
○ 신청방법: 해당일자에 현장방문
○ 점검일정
점검예정일 점검시간 해당지역
03/18, 06/17, 09/16 동지역 (제2정사주차장)
04/15, 07/15, 10/14 10:00~12:00 동부지역 (표선면사무소주차장)
05/20, 08/19, 11/18 서부지역 (안덕면사무소주차장)
○ 문의전화: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 760-2927)
가족상담 서비스 안내
○ 상담대상: 가족상담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 상담내용: 부모-자녀 상담, 부부상담, 임신 갈등 상담(비혼 청소년) 등 가족상담
○ 이용시간: 평일 09:00~18:00 (이외 시간 조율 가능)
○ 이용방법: 센터 내방 상담, 전화 및 사이버 상담 등
○ 상담문의: 서귀포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732-6484)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